

자연과 문화생활 다 즐길 수 있는 귀농·귀촌 1번지



전북 고창군은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 도시 부문에서 귀농·귀촌인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뽑혔다.

사람들이 고창을 선택하는 이유는 산과 들·바다가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과 일자리·교육·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고루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고창은 부부자·수박·고추·고구마 등 브랜드화된 농산물이 풍부하다.

고창군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총



전북 고창군은 전국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3860명의 귀농·귀촌인이 고창에 새 둥지를 틀었다. 2011년 494세대(1298명), 2012년에는 787세대(1465명)가 고창으로 정착하며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1번지로 부상했다. 고창군은 지난해 3월부터 '귀농·귀촌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선옥 조선비즈 기자

백두대간수목원 내년 개원... 청정자연의 산림 휴양도시



경북 봉화군은 백두대간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한 경상북도 최북단으로 대한민국 대표 산림 휴양도시이다. 면적의 83%가 춘양목 등 우수한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봉화군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조성된 외씨버선길, 숲길 갈래길, 승부역 가는 길과 함께 은어축제, 송이축제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봉화군은 산림 휴양도시의 특성에 맞는 굵직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2515억 원이 투입된 동아시아 최대규모의 국립



봉화군 승부역을 지나는 '협곡열차'를 타면 절벽과 바위산의 풍경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백두대간수목원이 2014년 개원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고, 퇴계 이황 등 유교문화 자취가 서린 청량산과 낙동강 일대에는 세계 유교 선비 문화공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정자를 활용한 누정 휴양문화사업, 춘양목과 산양삼을 활용한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 등도 추진되고 있다. 전선미 조선비즈 기자

'영덕대게' 맛보고 밤엔 달맞이 여행도 즐기세요



경북 영덕군은 울창한 삼림, 64km 길이의 해안 등 자연경관과 대게, 간송치 등 특산물이 유명한 관광지이다.

매년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열리는 '영덕대게축제'는 영덕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황금 영덕대게 낚시 체험과 영덕대게 페스티벌, 대게 김치담그기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의 '영덕 블루로드 달맞이 여행'이 7회에 걸쳐 진행된다. 윤선도 시비, 장포탈 등대를 거쳐 물안장



영덕군 축산항 인근 블루로드는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대표적 관광지다.

까지 6.5km를 걷는 야간 산행이다. 영덕군은 대게축제 같은 오래된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며 관광인프라 구축과 마케팅에 힘써 '영덕' 도시 브랜

드 육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방문객이 864만명인데 올해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10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한다. 노자은 조선비즈 기자

선인장 추출물로 수분 보충... 미백·주름 기능성 인증도



엔오티에스가 2011년 첫 선을 보인 천연기능성 화장품 닛츠는 자연친화적인 원료를 사용해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닛츠의 민감성 라인 '28레미디'는 선인장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세포의 물수송 통로 역할을 하는 '아쿠아포린' 단백질 활성화를 하고 수분을 보충해 피부에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준다. 닛츠는 식약청에서 미백, 주름 등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아 임상시



닛츠는 자연친화적인 원료를 사용한 천연기능성 화장품으로 고객들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함의 완료된 제품으로 고객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닛츠는 피부타입과 트러블 여부 등을 자료로 저장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담에 활용해 맞춤형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선훈 조선비즈 기자

한국관광공사에서 서비스·시설 인정받은 호텔 체인



베니키아(BENIKEA)는 'Best Night in Korea'의 머릿글자를 조합해 '최고의 휴식을 선사하는 한국의 대표호텔'이란 의미를 가진 호텔 체인 브랜드다. 현재 국내 54개 관광호텔이 가맹돼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관광산업의 인프라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니키아 호텔체인은 한국관광공사가 규정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맹호텔

자격을 얻는다. 가맹심사는 전문 인증기관이 참여해 시설과 서비스 전반에 걸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고객들의 신뢰가 높다. 합리적인 가격도 베니키아의 강점으로 꼽힌다. 베니키아의 객실요금(비수기, 평일 일반실 기준)은 1박당 최대 100달러 내외로 정해져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실속 있는 여행을 하려는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전선훈 조선비즈 기자



한국관광공사 제공 베니키아는 전문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가맹자격이 있다. 사진은 베니키아 호텔 전경.

도담삼봉·소백산 휴양림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 연다



단양팔경(丹陽八景)으로 잘 알려진 충북 단양은 한 해 평균 900만여명이 찾는 관광지, 소백산과 도담삼봉, 남한강 등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단양군은 그동안 휴양·체험시설을 잇달아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왔다.

방곡 도예촌, 금수산 바람개비마을, 한드미 마을도 단양을 찾는 사람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또 2016년 소백산 자연휴양림과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이 완공되면 단양을 찾는 '도시인'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단양군은 이번 수상을 통해 지난해 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에 이어 2년 연속



단양군은 한 해 평균 900만여명이 찾는 관광지다. 사진은 단양 도담삼봉의 모습.

'사랑받는 브랜드'로 선정됐다. 김동성 단양군수는 "연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내다보는 단양은 관광과 휴양, 건강 등 3박자를 고루 체험할 수 있

는 관광 휴양도시"라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힐링(힐링+웰빙) 관광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노자은 조선비즈 기자

정부 인증 학점은행제도 적용한 평생학습대학 운영



대구광역시와 구미의 중간지점에 있는 경북 칠곡군은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교육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갖춰가고 있다.

칠곡군 인구는 13만명에 불과하지만 20~30대가 35%에 달하는 젊은 도시이다. 이 때문에 칠곡군은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인력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칠곡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학점은행제도를 직접 적용한 칠곡평생학습대학을 세웠



경북 칠곡군은 칠곡평생학습대학을 세우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다. 칠곡평생학습대학은 학위와 자격증 취득이 연계된 교육체제로 여성농업경영전공, 사회복지학, 아동학, 한국어학, 청소년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까지

28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 중 250명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방과후 교사 등으로 자리를 잡았다. 박정현 조선비즈 기자

매달 일정 금액반아 생활비 걱정없게... 든든한 노후 보장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 7월 내놓은 주택연금의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살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인, 부부 기준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에게 한정된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 사망할 경우, 집값이 사망 시점까지 받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8월 주택연금 가입자 1만명 돌파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시흥대 주택금융공사 사장(가운데)이 주택연금 1만번째 가입자인 김용애씨(오른쪽 두번째), 배우자 손병례씨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은 연금보다 많으면 주택 처분 가격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집값보다 많을 경우 공사는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자녀에게도 부담이 지

워지지 않고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올해 3월 말까지 총 가입자 수는 1만3332명에 이른다. 노자은 조선비즈 기자

방송·애니메이션 등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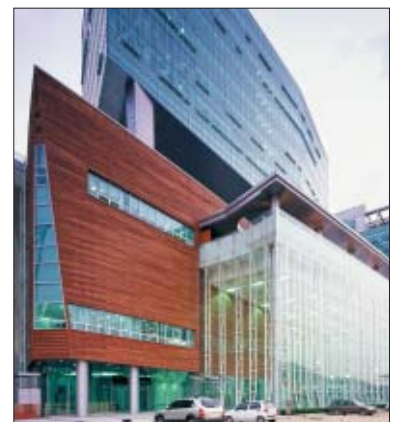


사이의 '강남스타일' '젠틀맨'이 세계를 휩쓸며 한류 콘텐츠에 관심이 높아지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걸음도 더 분주해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만화 등 경쟁력 있는 우리 콘텐츠를 육성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립된 콘텐츠 총괄 공공기관이다. 진흥원은 그동안 우리 콘텐츠를 담은 한류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해외진출, 차세대 콘텐츠 개발, 콘텐츠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왔다.

특히 해외 시장에 더 많은 우리 콘텐츠가 진출할 수 있도록 신시장 발굴을 위해 콘텐츠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를 지원하고 있다. 미래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핵심 콘텐츠 기술 개발도 강화했다. 연간 10억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콘텐츠 연구개발비 일부를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콘텐츠진흥원은 분쟁 조정 등을 통해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연선옥 조선비즈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류문화가 전세계에 더욱 더 확산되도록 경쟁력 있는 우리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진흥원 전경.

내 아이 위한 미네랄워터 물티슈... 제조일자로 신선함 보장



몽드드는 까다로운 한국 엄마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건강한 물티슈'로 알려져 있다. 몽드드는 유명 피아니스트 이루마씨와 그의 친구 유정환 대표가 세운 회사로 프랑스로 '내 담요'라는 뜻이다.

이루마씨와 유 대표는 "내 아이를 위한 물티슈를 직접 만들자"는 생각으로 창업했다. 몽드드는 지난해말 주요 백화점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기하면서 엄마들의 신뢰를 얻었다. 피부에 직접

닿는 물티슈도 먹거리처럼 신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인공적인 향이나 방부제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몽드드 물티슈는 대부분 10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을 발송하고 있다. 몽드드는 관천수(미네랄워터)가 함유된 물티슈를 만들었고 세균 침입을 막기 위해 물티슈를 한 장씩 뽑아 쓰는 방식도 도입했다.

몽드드는 2009년 작은 벤처업체로 시작해 3년만에 연 매출 100억원대를 달성했다. 몽드드는 지난해말 주요 백화점으로 입점하고 해외 7개국에도 수출 중이다. 박정현 조선비즈 기자



몽드드 제품 물티슈 업계 최초로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표기한 몽드드는 '건강한 물티슈'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